

투데이 칼럼

세계잼버리 새만금 상 '잼버리 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

먼저 2023년에 개최하는 제25회 세계잼버리가 우리고장 새만금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세계잼버리의 어원은 스카우트 창시자인 영국의 베인드 포웰경(B-P경)이 제1회 세계스카우트의 즐거운 축제란 뜻으로 잼버리라고 명명한 후 국가급 이상 스카우트야영대회를 잼버리라 부르고 있다.

국제적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UN산하총회,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스카우트 잼버리 등은 전통과 참가범위 및 규정, 개최지 수년전 선정 등 회원국들의 절대적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3만여명 이상 야영생활을 할 수 있는 약 200만평 이상의 넓은 야영지와 야영지내에 충분한 식수(상수도)와 하수시설 및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 한다.

둘째는 세계에서 참가할 청소년들이 도전과 개척정신 및 호연지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산악 활동장, 해안 및 수상 활동장, 영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50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만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인프라(기반시설)가 구축돼 있어야

함은 물론, 물이 흐르듯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설의 과학화가 선행돼야 한다.

셋째는 교동양의 구축이 잘 돼있어야 함은 물론 통신망 역시 IT강국답게 선진화돼야 한다. 새만금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교통망을 들 수 있겠다.

세계 150개국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새만금 잼버리장까지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국제공항은 인천, 무안, 청주 등 먼 거리에 위치해 상당히 불편한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나후원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절호의 찬스를 활용해 차체에 군(軍)과 함께 쓰는 군산비행장을 새만금 지역에 신설하면 미래시대를 대비할 통 큰 프로젝트의 발사를 솔직히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다섯째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잼버리를 개최하기 전에 야영장의 기반시설인 야영장 조성, 상하수도시설, 조경공사 및 화장실 설치, 호연지기 활동시설 구축, 산악활동장 개발, 해양활동장 기반시설 확장, 수상활동시설 개설, 본부시설 및 병영과 부속시설, 주차장시설의 확보 등 앞으로 남은 6년간 정부 및 국회 지원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훈련된 지도자가 약 3만여명 보유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인 스카우트연맹 자체의 힘만으로는 잼버리개최를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병 수

한국스카우트연맹 훈련교수



잼버리와 전북은 처음부터 청원적 연연을 갖고 있었다. 1985년7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잼버리가 무주구천동에서 개최되었을 때도 정부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두가 성공한 잼버리라고 찬사를 받으며 폐막했다.

당시 서독 뮌헨에서 제30차 세계총회에서 한국,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네시아등 6개 나라가 유치경쟁을 벌여 과반득표 국가가 없자 득표 1, 2위 국가를 상대로 2차투표에서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 개최국으로 한국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무주 아태 잼버리장에서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장 예정지역은 설악산 동편지리의 허허벌판이었고, 겨울의 새창바람은 컨테이너를 넘어뜨릴 정도였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성공의 비결은 동정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도움이었다. 그때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장 예정지역은 설악산 동편지리의 허허벌판이었고, 겨울의 새창바람은 컨테이너를 넘어뜨릴 정도였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성공의 비결은 동정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도움이었다.

(29일자에 계속)

사설

전북도의 지역 건설사 살리기 말뿐인가?

지역 건설사 살리기 약속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 지역 건설사 살리기는 게 말뿐이라서 그렇다. 도내 공공 사업의 태반을 외지 업체들이 쟁겨 먹고 있는데 전북도는 일자리 분배에 좀더 신경을 써줘야겠다. 얼마전, 전북도가 예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게 돋보여서 칭찬을 했었는데 그 칭찬이 성공했던 모양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하고서는 금방 풀이 죽어버린 까닭이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자리 현황에 마음을 두어야겠다. 발주 물량이 늘었다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공사의 태반이 외지업체들을 위한 잔치상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도내 건설업체에게는 기회가 되지 못한 채, 외지업체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으니 답답하다. 도내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자리 쟁기는 전북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일이다.

올해 공공공사 발주액이 1조 859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7%나 늘은 것은 광복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전북도의 공로라고 해도 과한 칭찬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주 물량이 아니다. 지역 업체의 수요액이 8147억 원에 그쳐 지난해 이만 때와 비교해 오히려 3.5%가 줄었으니 하는 말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 도내 업체의 참여율이 1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 불만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새만금 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일거리는 외지 대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큰 일자리의 현장마다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설치하고 있음은 그 모양이 좋지 않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서러움을 느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관공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텐데 말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실제 일자리 현장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매번 확인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조류독감, 근절대책 세우야

전북도는 조류독감 발병과 관련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했다. 며칠 전 사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도내 가금류 농가에 이상이 걸렸다. 그 피해 확산이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국내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통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거의 매번 전북 지역이 발병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은 도내 가금류 사육 환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조류 독감의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했다. 조류독감 인공루엔지의 발병으로 정경국의 지위를 상실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수출길이 막힌 전북 지역의 닭과 오리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의 닭과 오리도 수출길이 막혔음은 물론이다. 이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다른 지역에서는 분명히 전북 지역을 사갈사하는 눈길로 보고 있을 터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봐도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도는 해당 발병 농가의 오

리들을 살펴본 것으로 할 일을 더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도청에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차리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대책을 속의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싶다. 처음부터 그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1만 2천 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심상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폐사한 오리에서 AI H5형원이 발견된 것을 두고 더 큰 피해를 알리는 전주곡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후가 아직은 잠정판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대로 전북도는 계속해서 긴장해야 한다. H5 바이러스는 그 전염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한번 발생하면 하루가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던 까닭에 아직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전북도는 이번의 조류독감은 발병과 관련해 발상의 대전환을 보여야겠다. 지금 조류독감 발병은 전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뉴얼대로 차량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변 농가 또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 조기 진압을 보여줄 때 동시에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제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른의 모범부터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통사고에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부모의 안전지도가 있는 등교시간대와는 달리 오후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보행 어린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보행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중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사고인데,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은 단순하다. 무단횡단 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른보다 모방능력은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무단횡단이 바로 내 자녀, 이웃 어린이

의 교통사고를 조장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특히 자녀와 함께 하는 무단횡단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 때 뛰지 말고 걸어서 보도를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빨간불일 때는 안 뛰지만 파란불로 바뀌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뚝뚝 뛰게 된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뛰어나 울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안전한 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우리 어른들의 모범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박재원전북경찰청 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학교폭력 이제는 근절돼야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학교폭력의 수위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저연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폭력의 방법도 날로 조직화, 지능화, 흉폭·잔인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모욕, 감금,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지칭한다.

교육부의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37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약 2만 8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까와 꺼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목격하면, 방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국번 없이 117 또는 안전 Dream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최해진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